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KANGNAM UNIVERSITY

2027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Contents

논술고사 출제 방향 및 준비 방법 3

2027학년도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4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 지원자격
- ▸ 전형방법
-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방법

논술전형 논술고사 안내 5

- ▸ 논술고사 일시 및 장소
- ▸ 논술고사 주요 사항
  - · 논술고사 특징
  - ·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 · 문항수 및 점수산출방법

논술고사 인문사회계(A형) 문제 6

논술고사 인문사회계(A형) 해설 15

논술고사 공학계(B형) 문제 25

논술고사 자유전공학부(C형) 문제 32

논술고사 공학계(B형), 자유전공학부(C형) 해설 42

2026학년도 논술전형 전형결과 54

부록 I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요약 및 2026학년도 전형결과 55

부록 II 2027학년도 전형 일정 57



강남대학교 논술고사 출제 방향

강남대학교 논술고사는 약술형 논술로 출제 원칙과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 출제 범위와 수준은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논술 문제, 예시 답안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한다.

강남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정기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며, 사교육 없이 준비 가능하도록 EBS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와 연계해 출제할 예정입니다.

논술고사 준비 방법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 논술가이드북에 수록된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7월에 실시 예정인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해 강남대학교의 논술고사 문제 유형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 논술가이드북에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지와 유사한 형태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정답과 풀이 과정을 보기 전에 고사 시간(60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면 고사 당일 긴장을 줄일 수 있고 고사 중 시간 안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열의 출제 범위가 동일하므로 다른 계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문제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논술고사 준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 없이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EBS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활용해 출제할 예정이니 논술고사와 수능 대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유의 사항

- 국어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학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수식, 부호 사용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

▸ **답안은 문항별 지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지정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스캔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자가 볼 수 없음
- 문제 번호와 답안지에 표시된 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답안 작성 영역에 인적 사항 또는 답안과 관련 없는 표식을 남기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해야 함**
- 다른 색 볼펜이나 연필(샤프) 사용 시 스캔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절대로 교체할 수 없음. 답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 두 줄(취소선)을 긋고 수정하며, 수정 도구(수정액, 수정테이프 등)는 사용할 수 없음

| 강남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

- **일정:** 7월 6일(월) ~ 7월 20일(월) 예정
- **참여 방법:** 온라인 모의논술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 후 답안 제출(수학은 답안지 스캔하여 업로드), 모든 문항 답안 작성(업로드)을 완료한 경우 채점 결과 제공
- 자세한 사항은 6월 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및 고교 공문 발송

2027학년도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309명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부총장직속	자유전공학부	29
인문사회	복지융합대학	복지융합대학	28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	32
		법행정세무학부	25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30
공학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5
		인공지능융합공학부	19
		전자반도체공학부	21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학	공과대학	부동산건설학부	24
인문사회	사범대학	교육학과(사)	7
		유아교육과(사)	11
		초등특수교육과(사)	4
		중등특수교육과(사)	4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야)	11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야)	27
		법행정세무학부(야)	22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사정단계	학생부교과	논술	합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20% (200점)	80% (800점)	100% (1,000점)	없음

▸ 전형요소별 최고점/최저점

구분	논술	학생부교과
일괄합산	최저점: 700, 최고점: 800	최저점: 175, 최고점: 200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방법

▸ 반영과목

구분	반영교과	반영과목	활용지표
인문사회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반영교과 중 상위 20개 과목 반영 (이수한 과목이 반영교과에서 20과목 미만인 경우 이수한 과목만 반영)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공학계			
자유전공학부			

▸ 환산등급 점수표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배점	100	99	98	97	96	95	94	91	87.5
점수차	-	1	1	1	1	1	1	3	3.5

논술전형 논술고사 안내

☑ 논술고사 일정 및 장소

논술고사일	고사시간	계열	고사장 및 유의사항 발표
2026.11.28.(토)	10:00~11:00 (60분)	인문사회계	2026.11.20.(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14:00~15:00 (60분)	공학계, 자유전공학부	

❖ 논술고사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논술고사 특징

약술형 논술	국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단답형, 단문형으로 서술
	수학	답을 도출하기까지 풀이 과정을 수식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서술

☑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
- EBS 수능 연계 교재(EBS 수능완성, 수능특강) 활용

과목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답안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Ⅰ, 수학Ⅱ	-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 문항 수 및 점수 산출 방법

계열(학부)	배점별 문항 수				점수 산출 방법
	국어	수학			
	10점	8점	10점	12점	
인문사회계	8	1	0	1	**국어 80점**(8문항×10점) + **수학 20점**(1문항×8점, 1문항×12점) + **기본점수 700점** = 800점
공학계	3	2	3	2	**국어 30점**(3문항×10점) + **수학 70점**(2문항×8점, 3문항×10점, 2문항×12점) + **기본점수 700점** = 800점
자유전공학부	5	1	3	1	**국어 50점**(5문항×10점) + **수학 50점**(1문항×8점, 3문항×10점, 1문항×12점) + **기본점수 700점** = 800점

A형-인문사회계 >> 국어영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1 〈보기〉는 위의 시를 분석한 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10점]

보기

위의 시는 승객들에게 에워싸여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②)이라는/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① _____, ② _____

▶ 해설: 15쪽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吾]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수는 없고,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중략)…"

[A]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吾]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吾]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吾]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님께서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셨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B]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나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함

(나)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C]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과 족,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2 [A]에서 '나[吾]'는 과거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나가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을 [C]에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5어절로 찾아 쓰시오. [10점]

_____

3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두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① '수오(守吾)'의 의미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B]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② 집을 그리기 시작할 때, '나'와 '목수'가 가장 큰 순서의 차이를 보였던 집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나)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① _____

② _____, _____

▶ 해설: 16, 17쪽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보았다.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하던 아악이었다. 세종 역시 왕도 정치에서 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세종은 아악을 정비하여 신제아악(新制雅樂)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아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이므로 궁중의 제례에서도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아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新樂)을 창제하였는데 이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신제아악과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됨을 의미했다.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했는데, 세종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의 절차를 신악에 맞추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 대에는 신악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했다.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 그는 궁중 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또한 아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아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점차 확대되었다.

4 〈보기〉는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인물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조선 초 문묘 제례악에는 주로 아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윗글을 읽고 문묘 제례악에서 향악기의 사용 비중이 늘었던 것은 외래 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를 우려하고 중화주의를 탈피하여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신악을 창제한 (①)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 물론 (②)은/는 중국의 궁중 제례와 조회 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악을 새롭게 만들려 하지 않았던 것이겠지. 그러나 이렇게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 (③)가/이 원구제에 향악을 사용한 것 역시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18쪽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의사,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뉜다.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고,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비해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사문서라고 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되는 데 비해, 사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는 않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로서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된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그 예이다.

5 〈보기〉는 윗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문서 관련 범죄는 행위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사문서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바꾼 (②)와/과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만들어 낸 (③)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19쪽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텍스트, 독자 그리고 독서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독서는 의미 구성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 텍스트 중심 독서, 독자 중심 독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하므로 독자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상황이나 맥락의 영향보다는 텍스트 내의 의미 자체를 중시한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는 독서 활동에 유의미하다. 텍스트 중심의 독서 방법은 텍스트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독서이다. 텍스트를 쓴 필자의 의도나 사상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필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둘째,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이다. 가령 서사 텍스트라면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시점 등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셋째, 텍스트 내용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로 인과, 비교, 나열 등의 텍스트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독자가 주어진 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머릿속에 저장한다고 보지만,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구성된다고 본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독자 중심 독서에서는 독자의 배경지식 활성화,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사회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독자 중심 독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이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구성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신념이라고 본다. 독자들은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지식과 의미 구성 방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며, 한편으로는 글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준다.

6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의 ㉠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이 강조되는 (①) 중심 독서는 독자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독서의 의미를 구성하고, (②) 중심 독서는 독자가 글에 내재한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중시한다. 한편, (③) 중심 독서는 독자가 공동체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고 자신이 읽은 글에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각의 관점은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20쪽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뉜다. VA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이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한다.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줄 때는 펌프는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여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VV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에 넣어 준다.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혈액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산소로 교환하지 못하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7 〈보기〉는 윗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에크모는 체내의 (①)에서 뽑은 혈액을 다시 같은 곳으로 넣는 방식과, 체내의 (②)에서 뽑은 혈액을 체내의 (③)으로/로 넣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폐의 기능만을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모두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21쪽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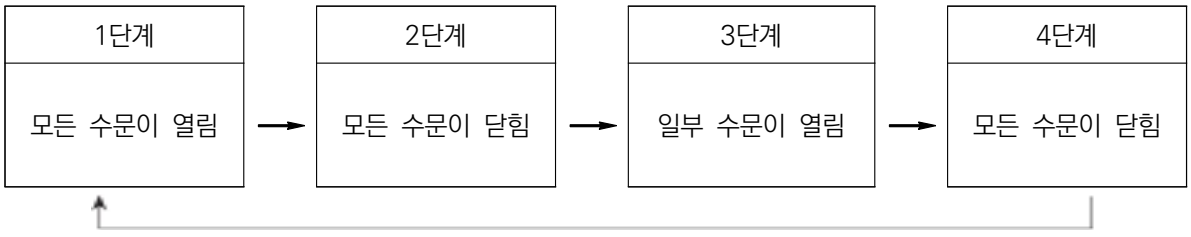
조석은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주기적인 운동이고, 조류는 조석으로 인한 해수의 수평 방향의 흐름이다. 조석을 설명할 때 해수면의 수위가 가장 낮은 때를 저조라 하고, 가장 높은 때를 고조라 하며, 연속된 저조와 고조의 높이차를 조차라 한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하며, 이 힘은 지구상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달과 태양은 지구의 기조력에 영향을 주지만 달이 지구와 더 가까워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것보다 약 두 배 강하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차가 5미터 이상이면서, 바다가 육지 속으로 들어온 지형인 만(灣)에서는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댐을 설치해 저수지를 만든 후 저수지 안쪽 물인 내해와 밖의 물인 외해의 수위 차로 인한 낙차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해수는 댐의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데,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갖는다.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8 〈보기〉는 윗글에 나오는 수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a. (①) 방식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한다.

b. (②) 방식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한다.

c. '3단계'에서 열리는 '일부 수문'은 '터빈'이 설치되어 있어 (③) 수문이라고 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22쪽

A형-인문사회계 >> 수학영역

9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y=\log_2(x+k)$가 닫힌구간 $[0,k]$에서 최댓값 M, 최솟값 m을 갖는다. $M-m$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8점]

10 함수 $f(x)=\frac{1}{3}x^3-x$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함수 $f(x)$의 도함수 $f'(x)$를 구하시오.

(2) 함수 $f(x)$의 극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함수 $f(x)$의 극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4) $\int_0^{\sqrt{3}} f(x)\,d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해설: 23, 24쪽

[인문사회계 1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 colspan="2">인문사회계(국어) 1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3">문학</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3">전동차, 할머니, 벽</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4">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핵심 시어가 상징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4">❍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문학 01-01]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td></tr></table>
❍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문학)</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4">이 작품은 화자가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은 모두 소외된 인물로 화자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관찰한 내용이나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행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고통스런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단어로 쓴다면, ①번 답은 '할머니'고 ②번 답은 '벽'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4">- ①, ②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4">-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4">① 할머니 ② 벽</td></tr>
</table>

[인문사회계 2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2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문학</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수오, 탁</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작품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문학01-01]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td></tr></table>
❍ 자료 출처: 교과서,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고등학교 문학</td><td>한철우 외 7인</td><td>비상교육</td><td>2024</td></tr><tr><td>고등학교 문학</td><td>최원식 외 13인</td><td>창비</td><td>2024</td></tr><tr><td>수능특강(문학)</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 (가)는 정약용의 ‘수오재기’라는 작품으로,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본래 나[吾]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깨닫게 된다.
제시문 (나)는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작품으로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대비시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주춧돌부터 그림을 그리는 목수를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으로 비유했다면, 자신은 ‘차치리’라는 사람처럼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나가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을 [C]에서 5어절로 찾는다면,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또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함.</td></tr>
<tr><td>답안</td><td colspan="3">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td></tr>
</table>

[인문사회계 3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3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문학</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수오, 탁</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작품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문학01-01]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td></tr></table>❍ 자료 출처: 교과서,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고등학교 문학</td><td>한철우 외 7인</td><td>비상</td><td>2024</td></tr><tr><td>고등학교 문학</td><td>최원식 외 13인</td><td>창비</td><td>2024</td></tr><tr><td>수능특강(문학)</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 (가)는 글쓴이가 큰형님의 서재 ‘수오재’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고 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으로, ‘수오’는 ‘나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나[吾]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큰형님이 서재에 이름을 붙인 의도를 추측하면서 그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다. [B]에서 맹자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수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3어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대비시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목수는 집을 그릴 때, 집을 그리는 순서를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림으로써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둔 사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림으로써 실제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그리기 시작할 때, 나와 목수가 가장 큰 순서의 차이를 보였던 집의 구성 요소 두 가지는 ‘주춧돌’과 ‘지붕’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
① 자신을 지키는 것 / 자신을 지키는 것이: 둘 다 맞음
② 주춧돌, 지붕: 순서가 달라도 맞음</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자신을 지키는 것 / 자신을 지키는 것이
② 주춧돌, 지붕</td></tr>
</table>

[인문사회계 4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4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아악, 향악, 신악, 아악기, 향악기, 세종, 세조</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독서)</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보았는데, 조선의 태조의 생각 역시 이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제시문을 보면 세종은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고 “궁중의 제례에서도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자주적인 악이 아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종의 생각은 세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온다. 신악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이라는 설명도 나오며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점차 확대되었다.”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아악을 계승하면서도 점차 향악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오는 “문묘 제례악에서 향악기의 사용 비중이 늘었던 것”은 ‘신악’을 창제한 세종의 의지가 후대왕들에 의해 차츰 반영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세종’이다.
“태조는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하던 아악이었다.”라는 제시문의 설명을 볼 때 건국 초기에 “중국의 궁중 제례와 조회 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했”던 주체는 태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태조’이다.
자주적인 악에 대한 세종의 생각은 세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오므로 ③의 정답은 ‘세조’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②는 ‘조선의 태조’도 인정함</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세종 ② 태조(조선의 태조) ③ 세조</td></tr>
</table>

[인문사회계 5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5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문서 대상 범죄, 위조, 변조, 허위 작성, 공문서, 사문서</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에 나타난 중심 내용과 글의 구조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독서03-02]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독서)</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에서는 문서에 대한 범죄 행위의 유형,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른 문서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①의 정답은 ‘사용’이다.
②와 ③은 사문서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의 유형과 그에 해당한 개념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을 보면 “사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조와 변조에 대해 제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고,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②의 정답은 ‘변조’이고, ③의 정답은 ‘위조’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사용 ② 변조 ③ 위조</td></tr>
</table>

[인문사회계 6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6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독서, 텍스트 중심 독서, 독자 중심 독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의 핵심 개념과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완성(독서)</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은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구성”되며,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독자’이다.
제시문을 보면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하므로 독자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텍스트’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독자들이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지식과 의미 구성 방식을 습득하고, 자신보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며, 한편으로는 글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독자 ② 텍스트 ③ 사회적 상호작용</td></tr>
</table>

[인문사회계 7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인문사회계(국어) 7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에크모, 심폐 기능, 대정맥, 대동맥, 심장, 폐</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어진 추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1: [12독서02-02]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2: [12독서03-03]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자료명: 수능특강(독서) / 저자: EBS교육방송 편집부 / 발행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발행년도: 2025</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에 의하면 에크모는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인공 장치이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은 모두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다는 점에 동일하지만, VA 방식은 빼낸 혈액을 대동맥에 주입하고, VV 방식은 빼낸 혈액을 대정맥에 주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VA 방식은 폐순환과 체순환을 모두 에크모가 대신해 주지만, VV 방식은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폐순환만을 대신해 준다. VA 방식과 VV 방식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보기〉의 첫 문장에는 '①'에서 뽑은 혈액을 다시 같은 곳으로 넣는 방식의 에크모가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가) 방식은 폐의 기능만을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VV 방식이다. 제시문을 보면 "VV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에 넣어 준다."라고 나온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대정맥'이다.
〈보기〉에서 "(나) 방식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모두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제시문에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나오므로 〈보기〉의 '(나) 방식'은 VA 방식이다. 제시문을 보면 "VA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대정맥'이며 ③의 정답은 '대동맥'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대정맥 ② 대정맥 ③ 대동맥</td></tr>
</table>

[인문사회계 8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 colspan="2">인문사회계(국어) 8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3">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3">조석, 해수면, 수위, 터빈, 창조식, 낙조식</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4">글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4">❍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1: [12독서02-02]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2: [12독서03-03]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자료 출처: EBS연계교재
자료명: 수능완성(독서) / 저자: EBS교육방송 편집부 / 발행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발행년도: 2025</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4">제시문에서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낙조식 방식은 〈보기〉의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낙조식’이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갖는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창조식 방식은 〈보기〉의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고,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창조식’이다.
제시문에 의하면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3단계’가 ‘발전 수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발전’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4">-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4">-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4">① 낙조식 ② 창조식 ③ 발전</td></tr>
</table>

[인문사회계 9번] 해설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수학) 9번	배점	8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Ⅰ	
	핵심개념 및 용어	로그함수, 최댓값, 최솟값	
출제의도	닫힌구간에서 로그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고,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Ⅰ01-07]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Ⅰ)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이므로 닫힌구간에서 최댓값, 최솟값의 차를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채점 기준	배점
$x=0$일 때, 최솟값 $m=\log_2 k$ $x=k$일 때, 최댓값 $M=\log_2 2k=1+\log_2 k$임을 구할 수 있다.	4
$M-m=\log_2 2=1$임을 구할 수 있다.	4

예시답안

함수 $y=\log_2(x+k)$는 증가하는 로그함수이다.

$x=0$일 때, 최솟값 $m=\log_2 k$를 갖고

$x=k$일 때, 최댓값 $M=\log_2 2k$를 갖는다.

따라서 $M-m=\log_2 2k-\log_2 k=\log_2 2=1$이다.

[인문사회계 10번] 해설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수학) 10번	배점	12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도함수, 극값, 정적분	
출제의도	수학Ⅱ의 미분과 적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Ⅱ02-08]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Ⅱ03-04]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Ⅱ)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극댓값과 극솟값 및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f'(x)=x^2-1$	3
(2)	$f(-1)=\frac{2}{3}$	3
(3)	$f(1)=-\frac{2}{3}$	3
(4)	$-\frac{3}{4}$	3

예시답안

함수 $f(x)=\frac{1}{3}x^3-x$의 도함수 $f'(x)=x^2-1$이다.

$f'(x)=x^2-1=0$이 되는 $x=1, -1$이다.

그러므로 $x=-1$일 때, 극댓값 $f(-1)=\frac{2}{3}$이고

$x=1$일 때, 극솟값 $f(1)=-\frac{2}{3}$이다.

$\int_0^{\sqrt{3}}\left(\frac{1}{3}x^3-x\right)dx=\left[\frac{1}{12}x^4-\frac{1}{2}x^2\right]_0^{\sqrt{3}}=-\frac{3}{4}$ 이다.

B형-공학계 >> 국어영역

공학계와 자유전공학부는 동일 교시에 시험이 실시되어 일부 문제는 공통 문제가 출제되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A]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B]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보기〉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① [A]에서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② [A]에서 화자의 암울한 심정이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③ [B]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연의 첫 어절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2쪽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에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많다. 더그데일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 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다고 오늘날에는 평가받고 있다.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뒤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가 나타나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혁신이 나타난다.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되 제도적 수단을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할 경우에 나타난다.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보기〉는 윗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①)은/는 아노미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②)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하고,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도피주의와 반역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③)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3쪽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디슨 축음기는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로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수화 장치는 짧은 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놋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 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이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원통의 V 자 홈에는 수화 장치의 강철 핀 끝이 근접해 있다.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 있고 나선 베어링에 끼워져 있어 회전축이 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 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이 주석 박에 새겨진다.

기록한 소리의 재생 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 있는 곳으로 넓은 쪽은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 펼쳐진 종이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 핀이 달려 있다. 만약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의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주석 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핸들을 돌리면 강철 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온다.

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에디슨 축음기의 구조를 추론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2음절로 쓰시오. [10점]

보기

a. 회전축의 회전에 따라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원통에 감긴 주석 박이 함께 회전하면서, 강철 핀 끝의 진동이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진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①) 장치에 해당하겠군.

b. 주석 박에 남겨진 홈이 회전하는 동안 홈의 끝에 닿아 있는 강철 핀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②) 장치에 해당하겠군.

c. 금속판으로 소리를 받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강철 핀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③) 장치에 해당하겠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4쪽

B형-공학계 >> 수학영역

4 양수 $a\,(a \neq 1)$에 대하여 함수 $f(x) = a^{-x} + 2a$가 닫힌구간 $[-1, 0]$에서 최솟값 2를 갖는다. $a > 1$과 $0 < a < 1$로 나누어서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만약, a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8점]

5 **[단답형]** 다음 상자 안의 (1), (2), (3)에 알맞은 값 또는 점의 좌표를 쓰시오. [8점]

함수 $f(x) = 4\tan(\pi + 4x) - 1$의 주기는 (1) 이고, $f\left(\frac{\pi}{4}\right)$= (2) 이다.

열린구간 $\left(-\frac{\pi}{8}, \frac{\pi}{8}\right)$에서 함수 $y = f(x)$의 그래프는 점 (3) 에 대하여 대칭이다.

▶ 해설: 47, 48쪽

6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 $f(x)=x^2-6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곡선 $y=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과 두 점 $(1, f(1))$, $(6, f(6))$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7 공차가 $d\,(d\neq 0)$인 등차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 하자.

$S_5=85$, $|a_{15}|=|a_{25}|$ 일 때,

첫째항과 공차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 해설: 49, 50쪽

8 두 함수

$$f(x)=\begin{cases} x^2 & (x \le a) \\ x & (x > a) \end{cases}, \quad g(x)=\begin{cases} a & (x < a) \\ -x+3a & (x \ge a) \end{cases}$$

가 있다. 함수 $f(x)+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9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는 $\int_{-1}^{1} f'(t)\,dt = 0$을 만족시킨다.

함수

$$g(x)=\int_{0}^{x} f(t)\,dt$$

가 $x=1$에서 극소일 때, 함수 $g(x)$는 닫힌구간 $[1,2]$에서 최댓값 M과 최솟값 m을 갖는다. 두 함수 $f(x)$와 $g(x)$ 그리고 M과 m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점]

▶ 해설: 51, 52쪽

1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와 양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방정식 $f(x)=0$의 실근은 k와 $2k$뿐이다.

(나) $\lim_{x\to k}\frac{f(x)}{x-k}=9$

$f(4)$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점]

▶ 해설: 53쪽

202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

C형-자유전공학부 >> 국어영역

공학계와 자유전공학부는 동일 교시에 시험이 실시되어 일부 문제는 공통 문제가 출제되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A]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B]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보기〉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① [A]에서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② [A]에서 화자의 암울한 심정이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③ [B]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연의 첫 어절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2쪽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에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많다. 더그데일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 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다고 오늘날에는 평가받고 있다.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뒤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가 나타나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혁신이 나타난다.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되 제도적 수단을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할 경우에 나타난다.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보기〉는 윗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①)은/는 아노미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②)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하고,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도피주의와 반역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③)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3쪽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디슨 축음기는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로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수화 장치는 짧은 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놋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 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이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원통의 V 자 홈에는 수화 장치의 강철 핀 끝이 근접해 있다.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 있고 나선 베어링에 끼워져 있어 회전축이 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 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이 주석 박에 새겨진다.

기록한 소리의 재생 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 있는 곳으로 넓은 쪽은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 펼쳐진 종이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 핀이 달려 있다. 만약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의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주석 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핸들을 돌리면 강철 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온다.

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에디슨 축음기의 구조를 추론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2음절로 쓰시오. [10점]

보기

a. 회전축의 회전에 따라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원통에 감긴 주석 박이 함께 회전하면서, 강철 핀 끝의 진동이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진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①) 장치에 해당하겠군.

b. 주석 박에 남겨진 홈이 회전하는 동안 홈의 끝에 닿아 있는 강철 핀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②) 장치에 해당하겠군.

c. 금속판으로 소리를 받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강철 핀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③) 장치에 해당하겠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4쪽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와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다. 이는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후에는 하위징아, 가다머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는 하위징아이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다. 또한 그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절실해진다고 하였다.

하위징아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여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놀이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왕복 운동이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때 운동의 동력이란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놀이가 재미있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4 a와 b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인물의 이름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장기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가상하여 만든 놀이다. 장기는 초나라 측이 말을 먼저 두고 그다음 한나라 측이 말을 둔다. 서로 번갈아 가며 말을 움직이는데 말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에 규칙이 있고 상대측의 궁을 먼저 잡으면 승리한다. 장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장기처럼 전쟁 형식을 본뜬 놀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몰입하며 즐기고 있다.

a. 〈보기〉를 (①)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에서 양측이 차례로 돌아가며 말을 움직여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 것은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

b. 〈보기〉를 (②)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가상하고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장기를 즐기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① _____, ② _____

▶ 해설: 45쪽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횃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듸?"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께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디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힁허케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였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쌔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5 〈보기〉는 위 소설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대로 a, b, c를 배열하시오. [10점]

보기

a.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자기네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b.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를 묻는다.
c. '점순'은 다시 바구니를 집어 들고 논둑으로 달아난다.
d. '나'의 가족은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 덕분에 집터를 빌리게 된다.

(d) → (①) → (②) → (③)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해설: 46쪽

C형-자유전공학부 >> 수학영역

6 양수 $a\,(a \neq 1)$에 대하여 함수 $f(x) = a^{-x} + 2a$가 닫힌구간 $[-1, 0]$에서 최솟값 2를 갖는다. $a > 1$과 $0 < a < 1$로 나누어서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만약, a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8점]

7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 $f(x) = x^2 - 6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곡선 $y =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과 두 점 $(1, f(1))$, $(6, f(6))$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 해설: 47, 49쪽

8 공차가 $d\,(d \neq 0)$인 등차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 하자.

$$S_5 = 85,\ |a_{15}| = |a_{25}|$$

일 때, 첫째항과 공차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9 두 함수

$$f(x) = \begin{cases} x^2 & (x \leq a) \\ x & (x > a) \end{cases},\quad g(x) = \begin{cases} a & (x < a) \\ -x + 3a & (x \geq a) \end{cases}$$

가 있다. 함수 $f(x) +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점]

▶ 해설: 50, 51쪽

1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는 $\int_{-1}^{1} f'(t)\,dt = 0$을 만족시킨다.

함수

$$g(x) = \int_{0}^{x} f(t)\,dt$$

가 $x = 1$에서 극소일 때, 함수 $g(x)$는 닫힌구간 $[1, 2]$에서 최댓값 M과 최솟값 m을 갖는다. 두 함수 $f(x)$와 $g(x)$ 그리고 M과 m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점]

▶ 해설: 52쪽

[공학계, 자유전공학부 1번] 해설

<table>
<tr><td rowspan="2">문항번호</td><td>공학계(국어) 1번</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10점</td></tr>
<tr><td>자유전공학부(국어) 1번</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문학</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밤비, 육첩방, 슬픈 천명, 악수</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핵심 시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1: [12문학02-02]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 기준2: [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고등학교 문학 / 김창원 외 11인 / 동아출판 / 2023
고등학교 문학 / 한철우 외 7인 / 비상교육 / 2024
고등학교 문학 / 류수열 외 7인 / 금성출판사 / 2024
고등학교 문학 / 정호웅 외 5인 / 천재교육 / 2024
고등학교 문학 / 김동환 외 6인 / 천재교과서 / 2023
고등학교 문학 / 정재환 외 5인 / 지학사 / 2024</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위의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밤비’는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밤비’가 들어 있는 행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이기 때문에 이 행의 첫 어절은 ‘창밖에’다. 그리고 ‘육첩방’은 일본 다다미방으로 시인이 일본 유학시절 머물던 작은 공간으로, ‘남의 나라’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암울한 심정이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육첩방’이 들어 있는 행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첫 어절은 ‘육첩방은’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악수’다. 따라서 ‘악수’가 들어 있는 연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이기 때문에 연의 첫 어절은 ‘나는’이다. 따라서 ①번 답은 ‘창밖에’, ②번 답은 ‘육첩방은’, ③번 답은 ‘나는’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②번 답은 어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육첩방’만을 쓸 경우는 맞지 않음</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창밖에 ② 육첩방은 ③ 나는</td></tr>
</table>

[공학계, 자유전공학부 2번] 해설

<table>
<tr><td rowspan="2">문항번호</td><td>공학계(국어) 2번</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10점</td></tr>
<tr><td>자유전공학부(국어) 2번</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일탈, 아노미 이론, 뒤르켐, 머튼</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에 나타난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2: [12독서03-02]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 수능특강(독서) / 저자: EBS교육방송 편집부 / 발행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발행년도: 2025</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에서는 일탈에 관한 여러 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뒤르켐은 “아노미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뒤르켐’이다.
제시문에서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괴리’이다.
또한,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을 제시한 뒤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할 경우에 나타나고,”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할 때 나타난다.”라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면 도피주의와 반역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할 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거부’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뒤르켐 ② 괴리 ③ 거부</td></tr>
</table>

[공학계, 자유전공학부 3번] 해설

<table>
<tr><td rowspan="2">문항번호</td><td>공학계(국어) 3번</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10점</td></tr>
<tr><td>자유전공학부(국어) 3번</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축음기,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글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어진 추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독서02-02]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독서03-03]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교과서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독서)</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제시문에 의하면 에디슨 축음기는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수화 장치는 외부의 소리를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며, 기록 장치는 기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를 기계 내부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재생 장치는 저장된 정보를 읽고 이를 다시 소리로 변환시켜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기록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원통에 감긴 주석 박을 함께 회전하면서 강철 핀 끝의 진동을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진 부분”은 기록 장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깊이가 다른 홈을 새기는’ 것과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드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기록’이다.
재생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주석 박에 남겨진 홈이 회전하는 동안 홈의 끝에 닿아 있는 강철 핀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은 재생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재생’이다.
수화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 장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보기〉에 나오는 “금속판으로 소리를 받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강철 핀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부분”은 수화 장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수화’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3">① 기록 ② 재생 ③ 수화</td></tr>
</table>

[자유전공학부 4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 colspan="2">자유전공학부(국어) 4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3">독서</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3">놀이, 하위징아, 가다머</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4">글에 나타난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4">❍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2: [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 수능특강(독서) / 저자: EBS교육방송 편집부 / 발행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발행년도: 2025</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4">제시문에서는 놀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하위징아와 가다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가 왕복 운동이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장기의 왕복 운동, 즉 게임의 반복을 놀이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 a의 관점은 ‘가다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가다머’이다.
제시문에서 하위징아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전쟁을 가상해 장기를 만들고 장기의 규칙을 만드는 등 동물과 달리 이성적 사유에 바탕을 두어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 b의 관점은 ‘하위징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하위징아’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4">-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4">-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td></tr>
<tr><td>답안</td><td colspan="4">① 가다머 ② 하위징아</td></tr>
</table>

[자유전공학부 5번] 해설

<table>
<tr><td>문항번호</td><td>자유전공학부(국어) 5번</td><td>배점</td><td>10점</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문학</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동백꽃, 마름, 소작인</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작품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의 순차적인 흐름을 이해하는지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국어과 교육과정</td></tr><tr><td>성취 기준1</td><td>[12문학03-02]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td></tr><tr><td>성취 기준2</td><td>[12문학03-04]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교과서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문학)</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 해설</td><td colspan="3">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감자를 주지만 거절을 당한다. 이에 야속함을 느낀 점순은 닭싸움을 시키는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소설의 시간적 순서대로 행위를 배열하면, 나의 가족은 3년 전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 덕분에 집터를 빌리게 된다. 그리고 나흘 전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 묻고 구운 감자를 주지만, 내가 거절하자 바구니를 집어들고 논둑으로 달아난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우리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b → ② c → ③ a 순이다.</td></tr>
<tr><td rowspan="2">채점 기준</td><td colspan="3">-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td></tr>
<tr><td colspan="3">- 3개 맞으면 10점
- 2개 맞으면 7점
- 1개 맞으면 4점
- 아래의 경우 다 맞음
* ① b, ② c, ③ a</td></tr>
<tr><td>답안</td><td colspan="3">b, c, a</td></tr>
</table>

[공학계 4번, 자유전공학부 6번] 해설

<table>
<tr><td rowspan="2">문항번호</td><td>공학계(수학) 4번</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8점</td></tr>
<tr><td>자유전공학부(수학) 6번</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수학 Ⅰ</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지수함수, 최솟값</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밑의 범위에 따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닫힌구간에서 지수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table><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td></tr><tr><td>학습내용 성취 기준</td><td>[12수학Ⅰ01-07]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td></tr></table>❍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table><tr><th>자료명</th><th>저자</th><th>발행처</th><th>발행년도</th></tr><tr><td>수능특강(수학Ⅰ)</td><td>EBS교육방송 편집부</td><td>한국교육방송공사</td><td>2025</td></tr></table></td></tr>
<tr><td>문항해설</td><td colspan="3">본 문항은 지수함수의 밑의 범위에 따라 닫힌구간에서 최솟값을 결정하고 밑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td></tr>
<tr><td>채점기준</td><td colspan="3"><table><tr><th>채점 기준</th><th>배점</th></tr><tr><td>$a>1$일 때, $a=\frac{1}{2}$이므로 a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td><td>4</td></tr><tr><td>$0<a<1$ 일 때, $a=\frac{2}{3}$임을 보일 수 있다.</td><td>4</td></tr></table></td></tr>
<tr><td>예시답안</td><td colspan="3">$a>1$일 때, $f(x)$가 감소하므로 $x=0$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따라서 $f(0)=a^{-0}+2a=2$이고 $a=\frac{1}{2}$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0<a<1$ 일 때, $f(x)$가 증가하므로 $x=-1$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따라서 $f(-1)=a^{-(-1)}+2a=2$이고 $a=\frac{2}{3}$이다.</td></tr>
</table>

[공학계 5번] 해설

문항번호	공학계(수학) 5번	배점	8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Ⅰ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의 성질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Ⅰ02-02]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완성(수학Ⅰ)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평행이동된 탄젠트함수의 주기, 함숫값 그리고 대칭점을 구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frac{\pi}{4}$	2
(2)	-1	2
(3)	$(0, -1)$	4

예시답안

(1) 함수 $f(x)=4\tan(\pi+4x)-1$의 주기는 $\frac{\pi}{4}$이다.

(2) $f\left(\frac{\pi}{4}\right)=4\tan\left(\pi+4\times\frac{\pi}{4}\right)-1=4\tan2\pi-1=-1$이다.

(3) 열린구간 $\left(-\frac{\pi}{8}, \frac{\pi}{8}\right)$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는 열린구간 $\left(-\frac{\pi}{8}, \frac{\pi}{8}\right)$에서 그려진 곡선 $y=4\tan(\pi+4x)=4\tan4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다.

곡선 $y=4\tan4x$는 원점 $(0, 0)$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곡선 $y=f(x)$는 점 $(0, -1)$에 대하여 대칭이다.

[공학계 6번, 자유전공학부 7번] 해설

문항번호	공학계(수학) 6번 자유전공학부(수학) 7번	**배점**	10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도함수의 정의, 접선의 방정식	
출제의도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도함수를 구하고,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Ⅱ02-06]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Ⅱ)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도함수를 찾고,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후, 그 직선과 수직인 직선 중 곡선과 접하는 직선의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채점 기준	배점
$f'(x)=\lim_{h\to 0}\frac{f(x+h)-f(x)}{h}=\lim_{h\to 0}\frac{(x+h)^2-6(x+h)-(x^2-6x)}{h}$ $=\lim_{h\to 0}\frac{2hx+h^2-6h}{h}=\lim_{h\to 0}(2x+h-6)=2x-6$	4
$y=x-6$ 또는 기울기 1만 구해도 됨	3
$a=\frac{5}{2}$	3

예시답안

함수 $f(x)=x^2-6x$ 의 도함수는

$f'(x)=\lim_{h\to 0}\frac{f(x+h)-f(x)}{h}=\lim_{h\to 0}\frac{(x+h)^2-6(x+h)-(x^2-6x)}{h}$

$=\lim_{h\to 0}\frac{2hx+h^2-6h}{h}=2x-6$ 이다.(h대신 Δx로 기술해도 가능)

$f(1)=-5$, $f(6)=0$이므로 두 점 $(1,-5)$, $(6,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6$이다. (또는 기울기 1)

곡선 $y=f(x)$ 위의 점 $(a,f(a))$에서의 접선과 $y=x-6$이 수직이므로 $f'(a)=-1$이다.

따라서 $2a-6=-1$이고 $a=\frac{5}{2}$이다.

[공학계 7번, 자유전공학부 8번] 해설

문항번호	공학계(수학) 7번 자유전공학부(수학) 8번	배점	10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등차수열, 일반항, 수열의 합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등차수열의 합과 그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 I 03-02]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 I)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식을 찾아 연립하여 첫째항과 공차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예시 1〉

채점 기준	배점
$a_1+2d=17$임을 구할 수 있다.	4
$a_1+19d=0$ 임을 구할 수 있다.	4
$a_1=19$, $d=-1$임을 구할 수 있다.	2

〈예시 2〉

채점 기준	배점
$\lvert a_{15}\rvert=\lvert a_{25}\rvert$이므로 $a_1=-19d$임을 구할 수 있다.	4
$S_5=85$이므로 $d=-1$이고 $a_1=19$임을 구할 수 있다.	6

예시답안

〈예시 1〉

$S_5=\dfrac{5(a_1+a_5)}{2}=85$ 이고 $a_3=\dfrac{a_1+a_5}{2}$ 이므로 $a_3=a_1+2d=17$이다.

$d>0$이면 $0<a_3<a_{15}<a_{25}$ 이므로 $\lvert a_{15}\rvert=\lvert a_{25}\rvert$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d<0$이다.

$a_{15}>a_{25}$이며 $\lvert a_{15}\rvert=\lvert a_{25}\rvert$ 이다. 따라서 $a_{15}>0>a_{25}$이다.

$a_{15}=-a_{25}$ 이므로 $(a_1+14d)+(a_1+24d)=2a_1+38d=0$이고 $a_1+19d=0$ 이다.

(또는 $a_{15}+a_{25}=2a_{20}=0$이므로 $a_{20}=a_1+19d=0$이다.)

$a_1+2d=17$과 $2a_1+38d=0$을 연립하여 계산하면 $a_1=19$이고 $d=-1$이다.

〈예시 2〉

$a_n=a_1+(n-1)d$ 이고 $a_{15}=a_1+14d$, $a_{25}=a_1+24d$이다.

$\lvert a_{15}\rvert=\lvert a_{25}\rvert$ 이므로 $\lvert a_1+14d\rvert=\lvert a_1+24d\rvert$ 이고 서로 다른 부호이다.

$a_1+14d=-(a_1+24d)$이며 $2a_1=-38d$ 이고 $a_1=-19d$ 이다.

$S_5=85$ 이므로 $d=-1$ 이고 $a_1=19$ 이다.

[공학계 8번, 자유전공학부 9번] 해설

문항번호	공학계(수학) 8번 자유전공학부(수학) 9번	**배점**	10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출제의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Ⅱ01-03]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Ⅱ)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두 함수의 합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을 갖도록 미지수들을 결정하고, 그 미지수 중 연속되게 하는 미지수를 찾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채점 기준	배점
$\lim_{x\to a-}\{f(x)+g(x)\}=a^2+a$, $\lim_{x\to a+}\{f(x)+g(x)\}=3a$임을 구할 수 있다.	4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a=0$, 2임을 구할 수 있다.	3
연속되도록 하는, $a=0$임을 구할 수 있다.	3

예시답안

두 함수 $f(x)$, $g(x)$는 $x\neq a$에서 연속이므로 $x=a$일 때만 확인하면 된다.

$\lim_{x\to a-}\{f(x)+g(x)\}=\lim_{x\to a-}(x^2+a)=a^2+a$

$\lim_{x\to a+}\{f(x)+g(x)\}=\lim_{x\to a+}(x-x+3a)=3a$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a^2+a=3a$이고 $a(a-2)=0$이며 $a=0$, 2이다.

극한값과 함숫값이 같아야 연속이므로, $f(a)+g(a)=a^2+(-a+3a)=a^2+2a$이고

$a^2+a=3a=a^2+2a$이다. 따라서 $a=2$일 때 만족하지 않고, $a=0$일 때만 만족한다.

[공학계 9번, 자유전공학부 10번] 해설

<table>
<tr><td rowspan="2">문항번호</td><td>공학계(수학) 9번</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12점</td></tr>
<tr><td>자유전공학부(수학) 10번</td></tr>
<tr><td rowspan="2">출제범위</td><td>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td><td colspan="2">수학 II</td></tr>
<tr><td>핵심개념 및 용어</td><td colspan="2">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최댓값, 최솟값</td></tr>
<tr><td>출제의도</td><td colspan="3">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닫힌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td></tr>
<tr><td>출제근거</td><td colspan="3">❍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Ⅱ03-03]정적분의 뜻을 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수능특강(수학Ⅱ) / 저자: EBS교육방송 편집부 / 발행처: 한국교육방송공사 / 발행년도: 2025</td></tr>
<tr><td>문항해설</td><td colspan="3">본 문항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와 극솟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차함수의 계수를 결정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닫힌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다.</td></tr>
<tr><td>채점기준</td><td colspan="3">
<table>
<tr><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f(x)$의 일차항의 계수가 0임을 구할 수 있다.</td><td>3</td></tr>
<tr><td>$f(x)$의 상수항이 -1임을 구할 수 있다.</td><td>3</td></tr>
<tr><td>$g(x)=\frac{x^3}{3}-x$임을 구할 수 있다.</td><td>2</td></tr>
<tr><td>$M=\frac{2}{3}$, $m=-\frac{2}{3}$임을 구할 수 있다.</td><td>4</td></tr>
</table>
</td></tr>
<tr><td>예시답안</td><td colspan="3">함수 $f(x)=x^2+ax+b$이라 하자.
$\int_{-1}^{1} f'(t)dt=f(1)-f(-1)=0$이므로, $1+a+b-(1-a+b)=2a=0$이고 $a=0$이다.
$g(x)$가 $x=1$에서 극솟값을 가지므로, $g'(1)=f(1)=0$, $f(1)=1+b=0$이고 $b=-1$이다.
그러므로 $f(x)=x^2-1$이다.
따라서 $g(x)=\int_0^x f(t)dt=\int_0^x (t^2-1)dt=\frac{x^3}{3}-x$이다.
이 삼차함수 $g(x)$는 닫힌구간 $[1,2]$에서 $x=1$일 때 최솟값을 갖고 $x=2$일 때 최댓값을 갖는다.
따라서 최솟값 $m=g(1)=\frac{1}{3}-1=-\frac{2}{3}$이고, 최댓값 $M=g(2)=\frac{8}{3}-2=\frac{2}{3}$이다.</td></tr>
</table>

[공학계 10번] 해설

문항번호	공학계(수학) 10번	배점	12점
출제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삼차함수 그래프, 함수의 극한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근거

❍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수학II02-09]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 자료 출처: EBS수능 연계교재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수능특강(수학II)	EBS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문항해설

본 문항은 조건 (가)를 이용하여 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찾은 후, 조건 (나)를 이용하여 하나의 삼차함수를 결정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채점기준

채점 기준	배점
$f(x)=(x-k)(x-2k)^2$ 임을 구할 수 있다.	6
$f(x)=(x-k)(x-2k)^2$ 일 때, $k=3$이고 $f(x)=(x-3)(x-6)^2$임을 구할 수 있다.	4
$f(4)=4$임을 구할 수 있다.	2

예시답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중 조건 (가)를 만족하는 함수는 2가지가 존재한다.

$f(x)=(x-k)^2(x-2k)$ 또는 $f(x)=(x-k)(x-2k)^2$이다.

$f(x)=(x-k)^2(x-2k)$일 때, 조건 (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lim_{x\to k}\frac{f(x)}{x-k}=\lim_{x\to k}\frac{(x-k)^2(x-2k)}{x-k}=\lim_{x\to k}(x-k)(x-2k)=0\neq 9$$

$f(x)=(x-k)^2(x-2k)$는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

$f(x)=(x-k)(x-2k)^2$일 때, 조건 (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lim_{x\to k}\frac{f(x)}{x-k}=\lim_{x\to k}\frac{(x-k)(x-2k)^2}{x-k}=\lim_{x\to k}(x-2k)^2=k^2=9$$이고 $k=3$이다.

또는 $f(k)=0$이므로 $\lim_{x\to k}\frac{f(x)-f(k)}{x-k}=f'(k)$임을 구할 수 있고 계산하면 $k=3$이다.

따라서 $f(x)=(x-3)(x-6)^2$이고 $f(4)=4$이다.

2026학년도 논술전형 전형결과

모집단위	2026학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학생부등급*			논술고사 성적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최종 등록자 80%컷	최종 등록자 평균	응시자 평균
자유전공학부	33	13.36	6	4.2	4.19	4.68	91.65	62.47
복지융합대학	32	7.75	6	4	4.01	4.56	99.81	85.00
상경학부	37	9.11	10	3.9	4.05	4.56	99.84	86.92
법행정세무학부	29	9.28	11	4	4.06	4.6	99.79	85.34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35	10	6	3.89	3.96	4.46	99.85	85.80
컴퓨터공학부	19	10	9	3.82	3.90	4.32	90.63	60.60
인공지능융합공학부	23	10.87	12	4.03	4.16	4.56	90.23	65.26
전자반도체공학부	25	10.68	20	3.96	4.18	4.83	91.27	65.21
부동산건설학부	28	8.86	18	4.47	4.41	5.06	85.64	60.62
교육학과	7	8.14	1	3.99	4.09	4.31	99.71	87.43
유아교육과	11	7.82	1	3.95	4.00	4.34	100.00	83.20
초등특수교육과	4	6	-	3.96	3.96	4.57	99.00	85.79
중등특수교육과	4	4.75	-	3.77	3.77	4.17	98.25	82.23
사회복지학부(야)	15	3.87	1	5.21	5.22	5.99	84.97	71.45
상경학부(야)	31	3.42	12	4.46	4.56	5.19	93.98	83.16
법행정세무학부(야)	26	4.27	9	4.63	4.58	5.36	95.22	78.22

*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20개 과목 반영

※ 계열별 논술고사 성적

모집계열	배점			최종등록자 평균			응시자 평균		
	국어	수학	총점	국어	수학	총점	국어	수학	총점
인문사회계	80	20	100	78.73	18.79	97.52	71.40	13.17	84.57
공학계	30	70	100	26.87	62.33	89.20	21.81	41.30	63.11
자유전공학부	50	50	100	47.24	44.41	91.65	37.43	25.03	62.47

부록 I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요약 및 2026학년도 전형결과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방법
논술	논술전형	309	학생부 교과 20% + 논술 80%
교과	지역균형전형	185	학생부 교과 100%
	농어촌학생전형	40	
	국가보훈대상자전형	19	
	만학도전형	26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2	
	기초차상위전형	58	
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1	239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우수자전형2	55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14	
실기	실기전형(디자인학과)	42	학생부 교과 40% + 실기 60%
	실기전형(체육학과)	25	학생부 교과 20% + 실기 80%
	실기전형(음악학과)	19	실기 100%

▶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모집단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산출식 적용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경쟁률	예비번호	학생부등급				모집인원	경쟁률	예비번호	학생부등급			수능최저학력기준충족비율
				최초합격자평균	최종합격자평균	최종등록자80%컷	최종등록자80%컷				최초합격자평균	최종합격자평균	최종등록자80%컷	
자유전공학부	28	8.11	36	3.6	3.8	4.0	3.15	14	24.86	14	2.64	2.78	2.9	41.7
복지융합대학	12	8.25	39	3.2	3.7	3.9	3.09	14	15.71	17	2.54	2.71	2.9	50.0
상경학부	20	6.95	45	3.2	3.6	3.7	2.84	14	15.79	20	2.48	2.70	2.99	43.9
법행정세무학부	14	5.64	26	3.2	3.6	3.9	3.05	14	14.86	32	2.61	2.87	3.09	49.5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20	9.95	40	3.2	3.5	3.6	2.82	22	13.09	25	2.53	2.68	2.85	52.4
컴퓨터공학부	12	11.17	26	3.3	3.7	3.9	3.1	13	10.54	17	2.82	3.06	3.28	47.4
인공지능융합공학부	12	13.75	19	3.6	4.0	4.0	3.33	13	13.31	9	3.03	3.15	3.38	33.2
전자반도체공학부	12	9.33	36	3.7	4.2	4.4	3.6	13	19.46	15	2.82	2.99	3.18	47.4
부동산건설학부	15	7.4	27	3.7	4.1	4.2	3.45	13	13	10	2.81	2.99	3.24	42.0
자유전공학부(야)	16	5.44	22	4.4	5.0	5.3	4.44	폐지						
사회복지학부(야)	8	6.5	5	4.1	4.4	4.5	3.73	5	17.6	6	2.99	3.14	3.27	미반영
상경학부(야)	18	5.5	22	4.3	4.6	4.9	4.19	18	18.44	14	3.12	3.23	3.41	미반영
법행정세무학부(야)	15	6.53	17	4.3	4.5	4.7	3.93	10	16.6	7	2.94	3.05	3.22	미반영

※ 학생부(교과100) 반영 방법

2026학년도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20개 과목 반영(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활용)
2025학년도	계열별 반영교과 전 과목 반영(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활용)

계열	반영교과	계열	반영교과
인문사회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유전공학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	국어, 영어, 사회

▶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1)

모집단위	2025학년도(학생부종합-학생부전형)						2026학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학생부등급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학생부등급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최종 등록자 80%컷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최종 등록자 80%컷
자유전공학부	27	10.15	24	4.2	4.3	4.7	20	19.45	13	3.88	3.99	4.3
복지융합대학	17	8.59	28	3.8	4.1	4.4	17	15.18	32	3.79	3.92	4.19
상경학부	30	9.1	26	4.0	4.4	4.5	30	12.8	31	3.83	3.91	4.28
법행정세무학부	10	9.5	15	4.0	4.2	4.7	10	14.2	13	3.74	3.85	4.19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20	16.1	19	3.9	4.0	4.2	22	19.36	26	3.63	3.80	4.02
컴퓨터공학부	15	12.33	15	4.3	4.5	4.8	15	15.87	32	3.91	4.20	4.47
인공지능융합공학부	16	8.38	26	4.4	4.4	4.7	15	12.27	20	4.04	4.25	4.76
전자반도체공학부	15	6.6	10	4.3	4.5	4.8	15	11.73	15	3.86	4.04	4.21
부동산건설학부	18	9.06	23	4.5	4.9	5.3	15	15.33	19	4.31	4.44	4.84
자유전공학부(야)	8	8.38	11	5.2	5.1	5.5	폐지					
사회복지학부(야)	17	7.65	14	4.9	5.0	5.3	12	10.17	11	4.65	4.75	5.04
상경학부(야)	20	6.25	19	5.0	5.3	5.7	20	8.3	12	4.78	4.97	5.47
법행정세무학부(야)	20	5.25	9	4.9	5.0	5.3	20	5.65	8	4.78	4.90	5.2

▶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2)

모집단위	2025학년도(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2026학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학생부등급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학생부등급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최종 등록자 80%컷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최종 등록자 80%컷
디자인학과	3	14.67	2	4.0	3.8	*	3	12	5	3.56	3.72	*
교육학과	10	6.5	7	4.1	4.2	4.4	16	6	19	3.83	4.04	4.27
유아교육과	20	8.25	11	4.0	4.3	4.6	20	9.7	27	3.87	4.12	4.71
초등특수교육과	10	4.7	5	3.9	4.0	4.3	8	6.38	8	3.57	3.85	4.27
중등특수교육과	10	3.9	6	4.1	4.6	4.8	8	6.5	4	3.71	3.89	4.26

* 모집인원 또는 등록인원 3명 이하의 경우에는 최종등록 80%컷 점수를 산정하지 않음

※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1, 2)은 내신등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함. 2025학년도 학생부 등급은 2025학년도 교과 반영방식으로 계산되었으며, 2026학년도 학생부 등급은 인문사회계·자유전공학부·예체능계는 국수영사, 공학계는 국수영과 전 과목 반영하여 계산된 등급임

부록II 2027학년도 전형 일정

구분			전형유형		전형일정	방법
수시	원서접수		전체 전형		2026.09.07.(월)~09.11.(금) 18:00까지	인터넷 접수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2026.09.14.(월) 17:00까지	- 09.14.(월) 우체국(익일특급) 소인 유효 - 방문제출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입력		2026.09.07.(월)~09.14.(월) 14:00까지	해당자만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학교장 추천명단 입력		교육부 지정일	추천 방법: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실기고사		실기 전형	디자인학과	2026.10.17.(토)	고사시간 및 고사장(실)은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체육학과 음악학과	2026.10.17.(토)~10.18.(일)	
	학생부 종합 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2) 학생부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2026.10.30.(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면접평가			2026.11.07.(토)~11.08.(일) 중 지정일	고사시간 및 고사장(실)은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논술고사		논술전형		2026.11.28.(토)	고사시간 및 고사장(실)은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발표		전체 전형		2026.12.18.(금)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홈페이지 합격조회에서 등록 클릭)
	등록 기간 (문서등록)		전체 전형		2026.12.21.(월)~12.23.(수)	
	추가합격		전체 전형	발표	2026.12.24.(목)~12.29.(화) 18:00까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참고
				등록	합격자 발표 시 별도공지	
	최종등록금 납부		전체 전형		2027.02.10.(수)~02.12.(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정시	원서접수		전체 전형		2027.01.04.(월)~01.07.(목) 18:00까지	인터넷 접수
	실기고사		디자인학과		2027.01.26(화)	- 고사시간 및 고사장(실)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 지원 인원에 따라 고사 일정이 단축될 수 있음
			체육학과 음악학과		2027.01.26(화)~01.27(수)	
	합격자 발표		전체전형		2027.02.05.(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전체전형		2027.02.10.(수)~02.12.(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추가합격		전체전형	발표	2027.02.13.(토)~02.17.(수) 18:00까지	2027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참고
				등록	합격자 발표 시 별도공지	

※ 자세한 일정은 강남대학교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대학교 모집단위 및 학과(전공)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전공)		입학정원
	부총장직속	자유전공학부			122
인문사회계	복지융합대학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16
				사회서비스학전공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136
			경제금융학전공		
			국제무역학전공		
		법행정세무학부	세무학전공		92
			법행정학전공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문화콘텐츠학과		147
			국제지역학과		
			중국콘텐츠비즈니스학과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과		
공학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99
			메타버스게임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인공지능전공		99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97
			반도체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전공		
		부동산건설학부	부동산학전공		110
			스마트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예체능계	예체능대학	디자인학과			65
		체육학과			43
		음악학과			27
인문사회계	사범대학	교육학과			32
		유아교육과			45
		초등특수교육과			19
		중등특수교육과			19
인문사회계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야)	사회복지학전공		52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야)	경영학전공		92
			경제금융학전공		
		법행정세무학부(야)	세무학전공		79
			법행정학전공		
합 계					1,491

※ 상기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2027학년도 본 대학 학사구조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자유로운 전부전과제도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자 • 6학기 이내 진급대상자 – 차기 학기가 3번째~6번째 학기인 학생이 신청 가능(단, (단과대학)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경우 선택한 주전공의 소속 학부(과)로 소속변경 후 신청가능) – 차기 학기가 7번째 이상인 학생은 신청 불가 • **총 취득한 성적의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제한	• 사범대학 학과는 전부·전과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부·전과 신청을 받음 • 주·야간 동일 학부(과)로는 전부·전과는 허가되지 않음 • (단과대학)자유전공학부로의 전부·전과는 허가되지 않음 • 예·체능계열로의 전과는 실기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입생 성적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수혜자격(요약)	기준성적	장학금 지급액
우원 장학금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전체 수석자(수능) **수시모집 논술위주(논술전형) 최종합격자 중 전체 수석자**	**3.0 이상**	**수업료 100% (4년간)**
목양 장학금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전체 차석자(수능) **수시모집 논술위주(논술전형) 최종합격자 중 전체 차석자**	**3.0 이상**	**수업료 100% (2년간)**
K-장학금	수능 영어 2등급 이내이고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평균이 85이상인자 중 신입생 최종합격자	3.0 이상	수업료 100% (4년간)
N-장학금	수능 영어 2등급 이내이고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평균이 80이상인자 중 신입생 최종합격자	3.0 이상	수업료 100% (2년간)
U-장학금	수능 영어 2등급 이내이고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평균이 75이상인자 중 신입생 최종합격자	첫학기	수업료 100% (첫학기)
수시우수 장학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1, 학교생활우수자전형2) 최종합격자 중 각 모집단위에서 최종 입학성적 상위 30% 이내인 자	첫학기	수업료 50% (1학기)
정시우수 장학금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각 모집단위에서 입학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단, 각 모집단위 모집인원 10명 미만인 학과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	첫학기	수업료 50% (1학기)

교통편 안내



※ 학기 중 무료 순환버스 운행: 수인분당선 기흥역 ⇔ 강남대학교 캠퍼스
- 자세한 내용은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실기고사, 면접고사일 등 수험생의 탑승은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합니다.

1946 — 2026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함께 한 80년, 함께 할 100년

강남대학교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로 40(구갈동)
입학 상담 입학전형관리팀
T. 031-280-3851~6 F. 031-280-3514
홈페이지 https://admission.kangnam.ac.kr

강남대학교 입학처
입학전형과 입시통계,
입학진단시스템 등의
정보 및 자료 제공

강남대학교 공식 유튜브
입학전형과 전공소개등의
영상제공